

경제

광주 클린디젤차 부품산업 '베갯'

국비 40억으로 출고...지방비는 한푼도 못건져

진곡산단내 디젤전문기술센터 부지 매입 보류

광주시가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이 국비 확보 저조 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283억원과 지방비 366억원, 민자 222억원 등 총 1871억원을 들여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85억원, 민자 65억원 등 25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종 예산심의 결과 내년도 국비 예산은 40억원만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지방비 85억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21개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개발 과제 중 우선 4~5개만 시작하기로 했으며, 진곡산단 내에 건립하려던 디젤전문기술센터의 부지 매입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기술개발과제를 상당수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부지가 확보된 핵심부품소재센터는 우선 건립하더라도, 진곡산단 내에 건립하려던 디젤기술전문센터는 국비확보 여력만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지방비 85억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업체를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도록 해 민자가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까지 국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호남권이 SUV 및

상용자동차 중심으로 연 100만대 규모의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R&D(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이 용이하며, 각종 인공기관과 우수인력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9600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부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기업 수출 확대 무역교류단 사업 결실 전남도 수출 300억달러 '눈앞'

전남도가 지역기업의 수출확대로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역교류단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사상 최초 연간 300억달러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 현재 전남도내 누적 수출액이 275억달러로 지난해 12월 수출액 28억달러를 넘어서며 23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지역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의 핵심요소인 바이어 발굴 비용과 현지 안내, 통역비, 항공료 일부 등을 지원 하는 무역교류단사업이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무역교류단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집

단 일괄과건 방식에서 탈피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과건 대상국가의 수출전략 품목을 설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민간지원센터에서 유력 바이어를 발굴하고 바이어가 발굴된 이후에는 수차례에 걸친 사전 협상을 가진 후 성사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에서 기업 관계자를 현지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2~3배 이상 투입해야 했지만 참여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실제로 무안군 일로농공단지에 입주한 리트머스화학(대표자 임형수)은 지난 7월 광주Chemical사와 중국시장 특점 대리점 계약을 맺은데 이어 지난달 30일 첫 신용장(LC)을 개설하고 8만달러 상당을 수출하는 등 연간 10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2002년 설립돼 페인트 일종인 분체도료용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는 입직인이 8명에 불과한 영세 중소기업이다. 수출 경험이 전무한 이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월 전남도의 중국무역교류단 참가가 계기가 됐으며, 현재 동남아와 유럽시장을 뚫고 있다고.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화인코리아 파산 결정 "채권 스톱"

법원, 공장 압류 등 금지...생산·영업활동은 정상

1000억원대 매출의 '알짜기업' 나주 화인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이로써 화인코리아는 공장 압류 등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정지돼 우려했던 공장 스톱 사태까지는 가지 않게 됐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23일 화인코리아 회사관리인인 나원주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이날부터 모두 폐지됐으며, 채무 또한 정지 됐다.

재판부는 파산 관재인으로 이정희 변호사와 정웅정 연꽃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 2명을 선임해 화인코리아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치를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도록 했다. 파산 채권자들은 배당 절차에 의해서만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 지급이 정지되고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도 제약을 받게 돼 화인코리아는 생산·영업활동을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화인코리아는 지난달 10일과 이달 8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법정관리가 무산됐다.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져 화인코리아 공장·설비 등에 압류·가압류에 따른 공장자동 중단사태가 우려됐다. 이를 막기 위해 나 대표이사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될 경우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도 지역 유망 중견기업인 화인코리아가 도산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채무 정지를 위한 파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화인코리아는 올해 매출 1000억원, 순이익 120억원 등 지난 2004년 회의

신청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 조만간 제2회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화인코리아는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350여명의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2교대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20여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하루 생산량만도 오리바베류 1만마리, 삼계탕 1만5000봉, 닭죽 3만봉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었다. 안이석 경영지원본부 기획감사팀 이사는 "올해 12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어 채무변제에는 별 문제가 없다"며 "조만간 변제조건을 개선한 제2회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산업공단 호남권본부

첨단산단에 '동반성장지원센터' 개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김갑순)는 23일 광주 사이언스 벨리(첨단산단) 내 공단 호남권본부에 '동반성장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사진) 이 센터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산업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등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동반성장 정책 발굴을 위해 매

분기마다 대·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윈스톱'으로 애로를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체 해결이 어려운 복합민원과 제도개선 과제는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 (www.winwin.go.kr)를 통해 지식정보부 이관·처리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경차 최대 판매

모닝 9만2840대 등 14만대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내수시장에서 경승용차 판매량은 14만452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8% 늘어났다. 이 기간 팔려나간 자동차(132만7000여대) 10대 중 한 대 이상이 경차인 셈이다. 기아차 '모닝'이 9만2840대가 팔려 64.2%의 점유율을 보였고, GM대우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5만1680대 판매됐다. 경차가 연평균 10% 가량 더 팔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로는 1998년의 최대 판매기록(15만1275대)을 넘어 15만800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금호건설 2000억 공사 수주

금호건설(금호산업 건설부문)은 23일 이번 주에 건축과 토목 등 4개 사업장에서 2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이 수주한 공사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제12공구 ▲서울 구로구 천왕2지구 2단지 아파트 ▲새만금유역 CSOs(합류식 하수도 율류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2공구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부산시 가장 큰 절리면 이곡리~일광면 화천리 일대에 4차로 도로를 신설, 연장하는 공사다. 총 공사금액은 약 950억원(금호건설 지분 85%)으로, 지난 21

일 수주했다. 같은 날 서울시 SH공사에서 발주한 천왕2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도 따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16개동을 건설하는 공사로, 총 공사금액은 870억원(금호건설 지분 80%) 규모다.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에 서 청학동 일원에 남항대교와 북항대

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2일 금호건설 컨소시엄(금호건설 90%+국제산업개발 10%)이 400억원에 수주했다. 또 금호건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435억원 규모의 새만금유역 CSOs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고려개발과 컨소시엄(고려개발 30%, 금호건설 25%)을 구성해 22일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37.53 (+0.58) 코스닥지수 502.39 (-2.62) 금리 (국고채 3년) 3.23% (+0.04) 원·달러 환율 1,148.80원 (-5.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Advertisement for Avantage Dry box dehumidifier. Features include: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Use good hearing aids),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Hear very well, don't see, price is to my lik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Suncheon, and Mokpo.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Case No.), 물건번호 (Property No.), 소재지 및 면적 (Location and Area), 용도 (Use), 감정평가액 (Appraisal Value), and 비고 (Remarks).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apartments and land.

Table with 5 columns: 물건번호 (Property No.), 소재지 및 면적 (Location and Area), 용도 (Use), 감정평가액 (Appraisal Value), and 비고 (Remarks). Lists various real estate auction items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Legal notice regarding the auction of real estate. It details the terms of the auction, including the location of the properties, their areas, and the appraisal values. It also mentions the auctioneer and the date of the auction.